제4차 ASTAP 회의

장명국
TTA 표준본부장

1. 서론

APT(Asia-Pacific Telecommunity : 아태전기통신협의체)의 SG활동과 연계하여 지역내 표준화기구 설립추진을 위한 전 단계로, 지역내 표준화활동의 현 주소를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인 표준화활동을 통한 지역의 이익을 확대해 나아가기 위한 방향모색의 일환으로 개최된 금번 ASTAP 4차 회의는 작년 6월의 서울회의에 이어 올해로 네 번째 맞이하는 것으로, ASTAP 산하의 모든 전문가 그룹(Expert Group) 활동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 향후 표준화활동 방향정립 등이 통상적으로 토의되었으며, 또한 이번 회의에는 지역내 주요 주관청 및 표준화 기관들도 초대되어 정책 및 표준화 현황소개 발표도 있었다. 그리고 아태지역의 표준화활동과 연구개발 기관들과의 상호협력과 연계방안에 대한 특별세션을 기획하여 아태지역 연구기관장들을 포함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따라서 ASTAP은 명실상부한 APT 지역의 표준화활동을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아래에서는 2001년 4월 2일(월)부터 4월 5일(목)까지 시암 인터컨티넨탈호텔(방콕)에서 개최된 제4차 ASTAP Forum 총회와 아태지역 연구기관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된 주요결과를 요약하고자 한다.

2. 회의개요

- ㅇ 회의명 : 제4차 APT Standardization Program(ASTAP) Forum 회의 및 아태지역 연구기관 대표자회의
- ㅇ 일시 : 2001. 4. 2(월)~4. 5(목)
- ㅇ 장소 : 태국 방콕 시암 인터컨티넨탈호텔
- ㅇ 회의 참석자 규모
  - APT 회원국 대표, 준회원국 대표, 협찬회원사 등
  - 국제기구 관계자, APT 사무국요원
  - 아태지역 연구기관 대표자, 표준화기관 대표자 등 약 90명
- ㅇ 국내 참석자
  - 정보통신부 하성호 서기관 등 14명 참석

- MIC(2명), TTA(1명), ETRI(5명), 삼성전자(2명), 한국통신(4명)

○ 주요회의 의제
- 아태지역 표준화 정책 및 활동
- 주요 표준화기구 활동현황
- 전문가그룹(EG)의 활동보고 및 계획
- ITU Reform에 대한 지역의견 토의
- 연구개발과 표준화의 연계방안 등

3. 주요 회의결과 및 활동실적

가. 아태지역 연구기관장 회의(Meeting of Heads of R&D Organization of Asia-Pacific Region)

○ APT 회원국들의 주관청, 연구기관, 표준화기구 및 주요회사 등에서 50여 명 참석

○ 아태지역 연구기관들의 상호협력 및 연계방안 토의에서는 주요 참석자들이 지역내 공동 관심프로젝트 개발, 주요 관심분야(IP, 3G, xDSL, 방송 등)에서의 상호협력, 공동표준개발과 이에 관련된 지역 MoU 체결가능성, 전문가 상호교환 및 R&D 지역정보지 공동발간 등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으나 Dr.Irmer가 제안한 초기단계의 관련 연구개발 정보의 공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의하였다.

○ 정보공유 방안으로서 관련 DB 구축을 통해 각 연구기관들의 연구진행 현황들을 상호 공유할 것을 논의하였으나 DB 개발 및 구축기간이 오래 걸리고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도 있으므로 우선 특정 분야(예, 3G, interoperability, 각 Expert Group에 과제할당 등)에 한해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 우선 3G 이동통신시스템 관련 DB를 구축하여 아태지역 연구기관 정보교류를 촉진키로 권고 결정

○ 또한 아태지역 내의 표준화이슈는 반드시 ITU-T와 연락문서화(Liaison Statement) 되어야 하며 이종망간의 조화를 통한 연동(an interoperability with network harmonization)이 아태지역 사업자, 제조업체들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기되었다.

○ 일본의 사사키(ARIB)는 IMT-2000의 표준협력활동인 3GPP/3GPP2 탄생이 GSC/RAST 활동결과 산물임을 상기시키고 ITU-R과 각 SDO들의 협력작품인 ITU-R M.1457 권고 형성과정을 좋은 협력모델로 삼아 이 지역내에서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 제4차 ASTAP Forum 회의

○ APT 회원국의 주관청, 준회원, 관련 표준화기구 등에서 80여 명 참석

○ 한국, 일본, 중국 등 7개국의 표준화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져 우리나라에서는 정통부 하성호 서기관이 “한국의 표준 화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주내용은 TTA를 통한 전문가 육성지원, 시험인증 기능확대, 국내표준포럼 육성 등이 담 겨있었다. 또한 국제/지역 표준화 세션에서는 ARIB, TTC, ACA(호주) 등과 함께 “TTA 표준화활동”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 ITU-T의 부국장인 Mr. F. Bigi가 최근 진행되고 있는 ITU-Reform Ad-hoc Group 결과를 간단히 소개하였고, AAP(대체승인절차) 제도의 성공적 시행과 TSAG의 “Pilot Forum 설립” 검토 등 ITU-T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ITU-T Reform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 일본, 호주 등 각국은 짧게는 6월 ITU 이사회 이전에, 길게는 차기 전권위원회 회의시 아태지역 의견을 집약하여 제출키 위해 관련 그룹을

신설키로 했으며 이 그룹에서 논의할 Agenda Item을 이번 회의시 정하기로 하였다.

○ ITU Reform관련 APT 공동입장 정리를 위한 Ad-hoc 회의에는
- 한국, 호주, 일본 대표 및 이종순 사무총장 참석
- 2002년 개최예정인 ITU 전권위원회에 대비한 APT 공동 입장정리 계획논의
- 우선 2001. 6월 개최예정인 ITU 이사회에 ITU Reform에 관한 APT 공동기고서를 제출키로하고 관련 업무분담을 아래와 같이 하기로 함
- 주관국은 5월 중순까지 APT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 후 공동기고서 초안을 마련하여 「제1차 APT ITU 전권위원회 준비회의(6. 1~6. 2)」에 제출키로 함.
- 이 그룹의 작업방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하되 각 이슈의 할당은 각국별로 분담하여 진행. 한국(토의항목, 아래표 (3), (6))은 관련 의장을 APT에 통보할 예정임.

○ 우리나라에서는 정통부 김영문 사무관이 최근 인터넷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보호 문제를 제기해 관련 Expert Group 신설을 제안하였으며 일본측도 비슷한 그룹의 신설을 주장하였다. 토의결과 Information Security Expert Group을 신설키로 하고 첫 번째 EG 라포쳐를 우리나라에서 먼저 맡기로 하였고(ETRI 손승원 박사) 차기 라포쳐는 일본서 맡기로 조정하였다.

○ IMT-2000 EG은 그룹명칭을 "IMT-2000 and beyond"로 개정키로 하였고 "beyond"

〈주제별 공동기고서 주관(Convener) 국가〉

번호	주 제	주관국
1	투표방식 및 회원국의 거부권	호주
2	ITU-T와 포럼과의 관계	인디아
3	ITU 구조내에서 ITU-T의 임무(mission)	한국
4	ITU-T 작업과제의 분류(규제・정책분야와 기술분야)	호주
5	전권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ITU 작업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ITU 포럼 설립 관련 포함)	일본
6	ITU-T TSAG(전략자문그룹)과 WTSA(전기통신표준총회)의 역할	한국
7	재정 및 예산 관련 사항	중국

〈ASTAP EG 및 라포쳐 현황〉

전문가 그룹	Rapporteur
○ Network and Service Management for IP World	- Mr. P.Ganesh(인도)/Dr. C.Yeh(일본)
○ Intelligent Networks	- Mr. I.S.Sastry(인도)
○ IMT-2000	- Mr. A.Sasaki(일본)/Dr. K.J.Wee(한국)
○ FWA	- Mr. Y.Shindo(일본)
○ ITS	- Mr. S.Oyama(일본)
○ IOP/APⅡ	- Mr. J.J.Sung(한국)/Dr. J.W.Lee(한국)
○ Internet-related Topics	- Dr. Hui-Lan Lu(일본)/Dr. Y.H.Jeong(한국)/ Dr. S.Nakagawa(일본)
○ HAPS	- Dr. K.Kosaka(일본)
○ ATM/xDSL	- Dr. J.J.Lee(한국)
○ Digital Broadcasting	- Dr. H.Miyazawa(일본)

부문을 한국의 위규진 박사가 맡기로 하고 공동라포쳐로 임명하였다.

4. 참가소감 및 향후 추진사항

○ ASTAP은 이번이 4번째 회의로써 아태지역의 참가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3차 서울회의시 외국인 참가자 약 60명 → 4차 회의시 약 80명) 지역기구인 ETSI와 상호협력협정을 추진하고 ITU에서도 대표를 파견하는 등 이 지역내에서 지역표준화 포럼으로서 그 대표성을 키우고 있다. 그러나 설립 당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우려했던 바와 같이, ASTAP의 EG중 일본은 10개 전문가그룹중 7개 분야 의장을 맡고있고 한국은 일부 EG 등을 이끌고 있는 형편으로서 일본의 기술, 표준화전략 등을 국제무대로 가져가기 위한 의견수렴기구로 ASTAP이 일본에게 이용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과 접근이 필요하며 TTA 표준총회 산하 관련 위원회에 ToR 보강 및 ASTAP 활동전문가들을 해당위원회의 라포쳐로 임명하는 등 국내조직과의 연계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전략적으로 검토할 ASTAP 전략그룹(가칭) 구성이 필요하다.

○ ASTAP의 10개 Expert Group들과 APT의 Study Group들과의 상호 연계활동이 필요하며 현재 중복분야 등에 대해서는 양 그룹의 역할분담을 조정하여야 하며 향후 기본적으로 APT와 ASTAP의 구조개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ITU-T의 대표로 참석한 Mr. Fabio Bigi와의 협의를 통해 TTA를 ITU-T의 Referenced Organization으로 등록·추진하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한·중·일 표준협력 포럼구성을 위한 의제외 협의를 하였는데 일본측에서는 기본입장은 찬성하되 구체적인 관심분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중국대표인 Mr. Yang(신식산업부, 전송 연구소 소장)과의 협의에서는 중국의 표준화기구들의 통폐합 추진사항 및 추진체계 재정립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 고 가을쯤 그 모습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하여 그때 즈음 협의가 더욱 용이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 여성 네티즌 비율 아시아 최고

한국의 여성 인터넷 이용자 비율이 아시아 국가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시장조사 업체 넷밸류코리아(kr.netvalue.com)가 5월 3일 발표한 '3월의 인터넷 이용행태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인터넷 이용자의 성별 비율이 남자 52.9%,여자 47.1%로 집계됐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성별 격차가 적은 것이고 세계적으로는 미국(남자 52.7%, 여자 47.3%)에 이어 두번째. 인터넷 시장조사 업체 에이씨닐슨 이레이팅스 닷컴(www.nielsen-netratings.com)이 지난 30일 발표한 '세계 21개국 인터넷 사용 행태 분석'에서도 한국 네티즌의 성별 비율은 남자 53.8%, 여자 46.2%로 나타나 역시 아시아에서 가장 고른 분포를 보였다. 넷밸류코리아 관계자는 "한국 여성 인터넷 이용자 수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왔다"며 "이용자 수만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성평등을 이룬 셈"이라고 말했다.